

6월의

계란가정망



송 상 정
(본지 편집위원)
(아람농장 대표)

◎개 황

5월의 전국 기온은 예년에 비하여 높아 성큼 여름이 닥쳐온 기분을 주었으며, 계란생산감소 및 계란 소비면에서도 영향을 준것 같다.

6월달에도 더욱 날씨가 더워지며 후반에는 장마가 닥쳐 계란보관 및 판매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것 같다.

◎생산측면

85년의 산란초기와 어린병아리 및 육성계 사료는 다음과 같다. 닭수수 및 계란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을것 같다.

산란초기1월 77,229t, 2월 77,319t 3월 83,301t, 4월 85,700t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이루었으나 5월달에는 난가하락으로 4월달 생산량을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.

어린병아리 및 육성계 사료는 1월 2,423,2월 2,541, 3월 4,041, 4월 4,925톤으로 증가되나 산란초기와 같이 5월에는 줄어 들 것이다. 육성계 사료(어린병아리, 중병아리, 대추사료)는 1월 22,081, 2월 18,883, 3월 19,269, 4월 20,547t으로 계속 증가 되었음을 알수 있다.

사료 생산량의 증가를 보면 현재 육성계 보유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, 이것은 금년 9

월 이후의 난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

◎예상난가

6월의 난가는 일반가정용, 공업용 모두 수요 감퇴가 예상되어 약세를 이룰 것이다. 1회 상승되면 2회 하락될 것 같은 상승 탄력치가 없다.

계란 등급별로 보면 중소란의 희귀성에 비하여 특란의 생산이 많아 노계 도태로 생산량을 줄일 수 밖에 없다. 특란 43원 받을때 산란율 65% 생산해도(산란초기 kg 222원)으로 볼때 현상유지가 어렵다.

계란 선별시 오란·과란을 엄선하여 계란의 보관도 깨끗한 난좌에 넣어서(종이난좌는 보관에 더 좋음)통풍을 잘시켜(에어컨, 선풍기, 자연풍이용)신선도 유지에 힘써야 하며, 계란에 생산일령을 표시하여 묵은 계란부터 출하 하여야 된다.

금년 여름의 계란판매는 유통상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판매지연,불리할 때 직접 소비자에게 상대하여 판매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.

6월의 계란가격은 특란 50원 전후로 예상되나 초중순에는 하락기미를 이루다 중하순에 상승되는듯 하겠다.